

자료제공: 2023. 2. 16.(목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

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서울브랜드담당관 | 강준령 | 2133-6185 |
| 브랜드관리팀장  | 권미정 | 2133-6940 |
| 담당자      | 조예지 | 2133-6198 |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3매

### 서울시, I·SEOUL·U 조형물 재활용재활용으로 새 가치 부여

- 서울시, 2. 18(토)부터 서울광장 등에 설치된 I·SEOUL·U 조형물 순차적 철거
- 철거된 조형물은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활용·재활용할 예정
- 서울 신규브랜드 홍보는 오프라인 조형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

- 서울시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따라 서울광장 등에 설치된 기존 서울브랜드(I·SEOUL·U) 조형물을 2월 18일부터 한 달간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 - 2015년에 만들어진 현 서울브랜드 I·SEOUL·U 조형물은 여의도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주요공원, 박물관 등에 총 29개 (스테인리스강 24, 목재 5) 설치되었다.
- 철거된 조형물은 새로운 가치를 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활용(업사이클링, Upcycling) 또는 재활용할 계획이다.
  - 기존 조형물들이 스테인리스강과 목재 등 단일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에 용이하다. 서울시는 설치 예술가, 재활용 전문가, 대학생 등

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철거된 조형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.

- 서울시는 '22년 8월부터 I·SEOUL·U 후속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'Seoul, my soul(서울, 마이 소울)'와 'Seoul for you(서울 포 유)'가 후보로 결정되어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 달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.
- 세계 도시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'메타버스 서울'을 오픈하는 등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서울시는 신규 브랜드 선포 이후에 기존 매체인 오프라인 조형물보다는 모션 그래픽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신매체(뉴미디어) 중심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강준령 서울시 서울브랜드담당관은 “새로운 도시브랜드가 개발됨에 따라 기존 조형물은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철거할 예정이며, 새로운 브랜드 홍보 조형물 설치는 최소화할 계획이다”라고 말했다.

○ 스테인리스강 소재



○ 목재류

